

종합·해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대철 신당 상임창당준비위원장, 김한길,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천정배 의원 등 범여권 핵심인사들이 1일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합민주당의 신당합류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 주자들 '컷오프' 생존경쟁 골몰

범식·여론조사 반영 여부 등 싸고 신경전 예고

범여권 대통합신당 창당이 임박한 가운데 범여 주자들이 대선티켓 확보의 '일차 관문'인 컷오프(예비경선)를 향한 경쟁에 들어갔다. 컷오프를 통과할 경우 각 주자 진영은 서바이벌 전략 짜기에 골몰하면서 8월 중 치러질 대선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일단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은 느긋한 분위기다. 예비경선을 겨냥한 전략을 따로 짜기 보다는 오는 9월경 비전선포식을 통해 대선출마를 공식화한 후 곧이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정책발표회 개최 등의 일정을 이어가는 등 본격선 준비를 예정대로 착착 진행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예비경선이 본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대선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캠프내 분위기도 읽힌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는 점을 들어 범여권 적자론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다분히 손 전 지사를 타깃으로 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 전 의장측 핵심의원은 "역대 대선은 한번도 대선론으로 완주한 적이 없다"며 "국민은 드라마를 원한다. 반드시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필승론을 강조했다.

이해한 전 총리는 국민의 정부가 씨를 뿌리고 참여정부가 가진 과실을 수확할 적임자임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 후보와 본선에서 맞설 적격자라는 논리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민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공중전'으로 승부하면서 본선경쟁력에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범여권 정통성을 고리로 손 전 지사에 대한 본격적 공세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규 의원은 '경제 대통령',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장'이란 슬로건을 내세워 영남 개혁세력 결집을 노리고 있다.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컷오프 이전에 후보별 비전과 정책·노선을 알릴 수 있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 있다.
신기남 의원은 선명한 진보개혁 노선을 통한 복지문화국가론으로, 김두관(金斗官) 전 행정장관은 제3기 민주개혁정부 수립론과 여의도 정치에 몰두지 않은 이상 출신의 서민 대통령론을 '키워드'로 잡았다. /임동욱기자 tuim@

범여 6인 담판...대통합 막판 진통

박상천 대표, 5일 출범 통합신당 합류 거부

통합과 3~4일째 당적 정리...민주 초미니 정당 전략

통합민주당이 오는 5일로 예정된 대통합 신당 창당 합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당분간 대통합 신당, 통합민주당, 열린우리당 3각 체제로 유지되면서 통합 방법론과 관련, 물밑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민주당은 구 중도통합신당 출신 의원 20명이 오는 3일 8단의 탈당에 나설 예정이어서 원내 8석의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정대철, 김한길 대통합 신당 창준위원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의장, 천정배 의원, 이경래 의원 등은 1일 오전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와 회동을 갖고 오는 5일 통합민주당이 대통합 신당 창당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회동 직후 성명서를 통해 "오는 5일 신당 창당은 대통합 신당 창준위와 통합민주당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면서 "열린우리당 및 기타 세력과의 통합 문제는 창당 후 의결기구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 늦어도 4일에는 당적을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여권 일각에서는 오는 5일 이전에 양측이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합 신당에서는 통합민주당 합류 없이는 사실상 대통합의 취지가 크게 손상되는데다 통합민주당도 지역적 기반인 광주·전남지역의 여론이 이미 대통합으로 기울었다 구 중도통합신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오는 5일 이전 양측이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측이 통합민주당 의원을 "통합민주당이 대통합 신당에 참여하라는 것은 시대적, 국민적 여망"이라며 "박 대표가 이러한 민심을 잘 읽어 조만간 대통합 신당 창당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신당 공동 창준위원장들과 주요 대선 주자들이 통합민주당의 신당 참여를 촉구하며 열린우리당 참여 문제를 창당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통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통합 완성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목표는 대선...모든 정파 아우르겠다"

범여 신당 광주시당 선임공동위원장 임현모씨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통합을 통해 화합한 뒤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능력있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면 연말 대선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래창조대통합민주당(가칭) 광주시당 선임공동위원장에 선출된 임현모(52) 광주교대 총장은 1일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자체 경쟁을 통해

"범여 대통합 참여하겠다"

추미애 전 의원

민주당 추미애 전 의원은 1일 "대통합이라는 대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세력 전체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대통합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의원은 이날 여수시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합민주당) 상대방을 닮으면서 독자 생존만

을 고집하면 (민주세력의) 분열만을 초래한다"며 "민주당원들은 한 분도 빠짐 없이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감정에 얽매어 답을 고집 시켜서는 안된다"며 "대통합의 민심을 거스르면 내년 총선에서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차기정부는 참여정부 계승해야"

강운태 전 장관

최근 열린우리당에 입당,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던 강운태 전 내부부장관은 1일 "일부에서는 역주행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정치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정치생명을 걸고 입당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 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계승하

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권력을 거머쥐고자 하는 탐욕 이전에 역사의 대의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범여권 통합과 관련 "통합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의 범여권 통합이라면 대선에서 실패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민주당도 참여정부를 세운 정당으로 참여정부를 인정하고 대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승근(800116-1569613)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한에 따른 관할 법률 제1032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 일로부터 2개월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나 단 860
공고인: 김승근 2.김리야 (위탁인 1, 2는 미상인이므로 법원 대리인 천경자 모(배우))
한정승인수리일: 2007. 7. 25.
공고기간: 2007. 8. 2. ~ 2007. 10. 1.
연락처: 광주 서구 생원동 1282 도에이파트 102-903 배은숙 (☎011-385-5124)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승근(800425-155061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한에 따른 관할 법률 제1032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 일로부터 2개월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나 단 866
공고인: 김지현, 김수민, 심나영, 심술기
한정승인수리일: 2007. 7. 25.
공고기간: 2007. 8. 2. ~ 2007. 10. 1.
연락처: 광주 북구 문흥동 996-2 공인파트 101-1512 김경호 (☎011-9612-5282)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07년 8월 1일 임시사원총회에서 사원 전원일치에 의하여 서한실업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의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일
서한실업유한회사
광주 남구 백운동 650-6
공동대표이사 윤 안 심
공동대표이사 노 정 조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계승공고)
중앙정비(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도산정비(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7년 08월 01일 개회된 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기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과 빚을 "을"에 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산별 제50조의4제2항의 결의 절차를 밟아 산별 제50조의4제1항의 절차 전 시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시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 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07년 8월 2일
"갑" 중앙정비 주식회사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동리 1057-4
최근 결
"을" 주식회사 호상정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영동리 141
전종일, 김영성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8월 1일 첫진도 개강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가본서 핵심요약으로 심화과정 이해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한 출제 포인트 이해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첨단점 ☎ 971-0002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1/3로 줄었다
미국특허, 6단계 히트펌프로 펌퍼야 유지비는 1/3입니다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펌퍼야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난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한정수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46만원~200만원까지 무상지원
한국전력에서 원격제어 냉·난방기를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일부부품대금)
10평형~160평형까지
에어컨 특별 할인 판매 실시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
업체 최초 펌퍼야 특별 리스료 개박세
보증금 10% 부담하시고 계약기간 만료후 제품의 소유권 이전 및 보증금 돌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이자 한부 반액 (12개월)
심심, 태우, 기온제어별 12, 24, 36개월 할부 가능

제1회 경찰청 공인자격 인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심협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무등고시와 함께라면 합격은 쉬워집니다.
이런 분은 꼭 응시하세요!
교통관련업체 종사하시는 분
전문직(중개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등에 종사하시는 분
취업, 개업을 준비중인 남·녀, 주부
노후복지 및 사회 보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분
강의 일정표
평일반 월·수·금
주말반 토·일
개강 8월 11일
무료 공개 강좌
교통사고 조사론(강좌)
합격에 필요한 자료 및 비법 공개
★ 원서접수대행 : 8월 2일 ~ 31일까지 ★
출제 위원급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로
최다합격자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TEMPIA
(062)955-4222, 080-701-7117
MBC, KBS, SBS, MBC
무등고시학원
(062)434-7858